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법과 정치] 분석

1. 출제 경향

① 총평

2014학년도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법과 정치는 작년의 정치와 법과 사회가 법과 정치로 합쳐지면서 교육 과정 평가원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출제하는 과목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두 과목과 이번 법과 정치 한 과목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작년 정치와 법과 사회를 종합하여 비교할 수 있다.

2014학년도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 먼저 난이도의 경우는 작년 대수능보다 쉬웠고, 작년 9월 모의평가 비교할 때도 쉬웠으며, 올해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도 쉬웠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9월 모의평가의 출제 단원을 분석해보면 1단원에서 4문제, 2단원에서 2문제, 3단원에서 2문제, 4단원에서 4문제, 5단원에서 6문제, 6단원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다. 2단원이 전형적인 정치 단원이라면 정치 단원의 출제 빈도가 낮고, 법 분야의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았다.

합답형 문제는 9문제로 이전에 비해 다소 많았으며, 합답형 중에서 답지 구성이 2~3개에 해당하는 문제는 1문항으로 이전에 비해 적었고, 이는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낮추는데 일정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9월 모의평가에서는 기존에 많이 출제되었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충실히 풀어본 학생에게는 매우 유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EBS 수능 교재의 연계가 특히 두드러져서 EBS 수능 교재를 착실하게 풀어 본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출제경향 특징 3가지

하나. 정치 문제보다 법 문제가 훨씬 많이 출제되었다.

둘. 이전보다 쉽게 출제되었다.

셋. EBS 수능 교재와의 연계가 매우 충실했다.

2. 난이도

〈2012년 9월 모의평가/ 2013학년도 수능/2013년 6월 모의평가와의 체감 난이도 비교〉

영역	2012년 9월 모의평가와 비교	2013학년도 수능과 비교	2013년 6월 모의평가와 비교
법과정치	쉬움	쉬움	쉬움

법과정치의 경우 2012년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할 때 쉽게 출제되었고, 2013학년도 대수능의 난이도와 비교해 보면 훨씬 쉽게 출제되었으며, 2013년도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볼 때도 쉽게 출제되었다. 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기존의 정치와 법과 사회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요소와 자료가 많이 사용되었고 사용된 자료 역시 크게 어렵거나 새로운 것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컸다. 두 번째는 수능 연계율이 특히 높고, 연계 내용 또한 자료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면서 정답지도 동일한 문항이 다수 있었다. 이 때문에 EBS 수능 교재를 풀어본 학생들은 매우 쉽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기출 요소가 많이 있고, 문항 자체의 EBS문항 연계가 확실하여 평소 기출 문제와 EBS 교재를 충실히 푼 학생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① 파트별 세부 난이도

1단원에서는 1, 3, 6, 8번 문항이, 2단원에서는 4, 7번 문항이, 3단원에서는 5, 19번 문항이, 4단원에서는 10, 11, 12, 13번 문항이, 5단원에서는 9, 14, 15, 16, 17, 20번 문항이, 6단원에서는 2, 18번 문항이 출제되었다. 1단원 민주 정치와 법에서는 4문제가 출제되었다. 1번 문제의 권력 분립 자료는 빈번하게 사용되고 출제된 자료여서 학생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며, 3번 문제 역시 평이한 내용이면서 EBS와 연계되어 있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2단원에서는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2문항 모두 EBS 교재와 거의 동일한 문항이어서 학생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3단원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특별히 어려운 문항은 없었다. 19번 문항이 다수 난이도가 있지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어서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이다. 4단원에서는 4문제가 출제되었다. 10번 문항은 상속에 대한 문항인데 과거에 비해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11번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12번은 답지의 내용이 학생들에게는 다소 까다로운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다. 5단원 사회생활과 법에서는 가장 많은 6문항이 출제되었다. 이 단원에서 까다로운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는데 9, 14, 17번이 그러한 문항이다. 특히 17번 문항은 학생들이 ③, ④ 답지에서 사이에서 많이 고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단원 국제정치와 법에서는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은 자주 출제된 문항이 학생들이 대비가 잘 되어 있었을 것이다.

② 고난도 문제

• 17번 - 이 문제는 행정 심판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이다. 답지 ①, ②, ⑤는 거리가 멀어 오답지임을 학생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③, ④번은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적지 않은 학생들이 두 답지 상이에서 고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EBS 교재 연계 문항이라 체감 난이도는 다소 낮아졌을 것이다.

• 20번 - 부당 해고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를 이해하는 문항인데, 노동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오답지들이 나름대로 정답 매력을 가지고 있어 더욱 그랬다.

③ 신유형 문제

• 11번 -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의 책임에 대해 묻는 문항인데, 상황을 만화로 구성하였다. 이전에도 출제된 유형이긴 하지만 출제 빈도가 낮은 문항 유형이다.

3. EBS 교재와의 연계성 분석

① 연계표

문항 번호	EBS 교재 연계 내용		
	교재명	쪽수	문항번호 (내용요소)
1	수능 완성 법과 정치	12	6번
2	수능 완성 법과 정치	147	19번
3	수능 완성 법과 정치	16	1번
4	수능 완성 법과 정치	39	9번
5	수능 특강 법과 정치	90	8번
6	수능 특강 법과 정치	33	1번
	수능 완성 법과 정치	23	3번
7	수능 완성 법과 정치	63	7번
9	수능 완성 법과 정치	48	2번
12	수능 특강 법과 정치	128	6번
13	수능 특강 법과 정치	110	3번
	수능 완성 법과 정치	77	8번
14	수능 완성 법과 정치	152	18번
15	수능 특강 법과 정치	169	1번
17	수능 특강 법과 정치	160	4번
20	수능 특강 법과 정치	178	4번

② 체감 연계도

법과 정치에서 출제된 20문항 중 EBS 수능 교재에서 14문항을 연계하여 출제하였으며 연계율은 70%이다. 연계 유형도 EBS 수능 교재 문항의 자료 및 지문, 문항의 변형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학생들의 체감 연계도는 매우 높았을 것이다. 특히 내용 요소 연계가 아니라 문항 연계라 학생들의 체감 연계도는 특히 높았을 것이다.

③ 연계유형별 세부 분석

(1) 개념/원리 활용

- 대표 문항 : 1번, 13번, 14번, 17번

개념/원리 활용의 경우 1번, 13번, 14번, 17번의 4개가 출제되었다. 1번 문제는 삼권 분립을 보여주는 EBS 교재의 그림을 사용하여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해 평가하였고, 13번은 한정지산, 금지산 제도의 변경과 관련된 교재의 자료를 활용하고 답지 내용도 비슷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2) 자료/지문 활용

- 대표 문항 : 2번, 3번, 4번, 6번, 9번

자료/지문 활용은 2번, 3번, 4번, 6번, 9번의 4개가 출제되었다. 2번 문항은 교재의 자료를 거의 그대로 활용하였고, 답지도 비슷해 학생들의 체감 나이도가 아주 높은 문항이었

고, 3번도 평이한 내용을 또 연계까지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과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4번 또는 자료와 정답지 거의 같아, 수능 교재를 충실히 풀어본 학생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항이었다.

(3) 문항의 변형

- 대표 문항 : 5번, 7번, 12번, 15번, 20번

문항의 변형은 5번, 7번, 12번, 15번, 20번의 5문제가 출제되었다. 5번 문항은 자주 출제되는 헌법 내용을 다루었고, 7번은 자료와 정답지가 거의 수정되지 않고 사용되었고, 다른 문항도 연계가 충실히 이루어져 EBS 교재를 충실히 공부한 학생들이 큰 도움을 얻었을 것이다.

4. 대표 연계 문항

9월 모의평가 문항 4번	EBS 수능 완성 39쪽 9번
<p>4. (가), (나)에 들어갈 민주 선거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과거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1인 1표제를 채택하여 지지 정당에 대한 별도의 투표 과정 없이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만으로 정당 득표율을 계산한 후, 정당별로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였다. 그러나 이는 유권자가 비례 대표 의원의 선출에 있어서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u>(가)</u>의 원칙에 의해 되고, 지역구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이는 정당 추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u>(나)</u>의 원칙에 의해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한 표는 지역 대표를 뽑고, 다른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여 비례 대표를 결정하는 1인 2표제가 채택되었다.</p>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가)</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나)</div> <div style="text-align: center;">(가)</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나)</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5px;"> <div style="text-align: center;">① 직접 선거</div> <div style="text-align: center;">② 정당 선거</div> <div style="text-align: center;">③ 정당 선거</div> <div style="text-align: center;">④ 정당 선거</div> <div style="text-align: center;">⑤ 보통 선거</div> <div style="text-align: center;">⑥ 보통 선거</div> </div>	<p>09 —</p> <p>다음 글의 A, B에 들어갈 선거 원칙으로 옳은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우리나라 유권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두 표를 행사한다. 한 표는 지역 대표를 뽑고, 다른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여 비례 대표를 결정한다. 과거 1인 1표제에서는 지역구 선거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을 배분하였다. 하지만 이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의 소속 정당과 그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경우 <u>A</u>에 의해되고, 지역구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이는 비례 대표 의원 선출에 반영되지 못하므로 <u>B</u>에 의해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p>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A</div> <div style="text-align: center;">B</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5px;"> <div style="text-align: center;">① 정당 선거</div> <div style="text-align: center;">② 정당 선거</div> <div style="text-align: center;">③ 직접 선거</div> <div style="text-align: center;">④ 직접 선거</div> <div style="text-align: center;">⑤ 보통 선거</div> <div style="text-align: center;">⑥ 보통 선거</div> </div>
<p>[자료 및 지문] EBS 교재의 자료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고, 정답지의 내용도 동일하여 EBS 교재의 문항을 풀어 본 학생이라면 이 문항을 보는 순간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문항이다. EBS 교재와 문항의 일치도가 거의 90% 이상에 이르러 EBS 교재를 본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문항이라 생각된다.</p>	

9월 모의평가 문항 7번	EBS 수능 완성 63쪽 7번
<p>7. 다음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p> <div><p>[판시 사항]</p><p>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요건으로 5억 원의 기탁금 납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가 후보 예정자의 <u>(가)</u> 음/를 침해하는지 여부</p><p>[결정 요지]</p><p>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하여 기탁금 제도를 두더라도 그 금액이 현저하게 과다하거나 불합리하게 책정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없다. 5억 원의 기탁금은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조달하기에 매우 큰 액수임이 명백하다. ...[중략]... 결국, 이 사건 조항은 개인에게 현저하게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며, 이는 재산의 없고 직음에 의하여 <u>(가)</u> 행사 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므로 청구인의 <u>(가)</u> 음/를 침해한다.</p></div> <p>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다. ② 모든 개별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권리이다. ③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하였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⑤ 우리나라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차별 없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p>	<p>07</p> <p>다음은 대통령 입후보자의 기탁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다. 밑줄 친 권리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p> <div><p>[제목]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요건으로 5억 원의 기탁금 납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 확인(2007헌마3024)</p><p>[결정 요지]</p><p>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하여 기탁금 제도를 두더라도 그 금액이 현저하게 과다하거나 불합리하게 책정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없다. 5억 원의 기탁금은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조달하기에 매우 높은 액수임이 명백하다. ...[중략]... 결국, 이 사건 조항은 개인에게 현저하게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며, 이는 고액 재산의 다량에 의하여 <u>이 권리의 행사 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u></p></div> <p>① '국가에 의한 자유'에 해당한다. ② 재외국민은 권리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본질적 기본권이다. ④ 국가의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⑤ 전부 인권으로서 국가로부터 권리 행사를 제약받지 않을 권리이다.</p>
<p>[자료 및 지문 활용] 헌법 재판소의 결정문에서 피선거권을 주제로 한 EBS 교재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고, 정답지의 내용도 EBS 교재의 내용과 동일하여 학생들은 누구나 쉽게 연계를 체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용 요소도 평이한 내용이라 EBS 교재의 문항을 차분히 풀어본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문항으로 생각된다.</p>	